

제 330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「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」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2613
------------	------

문성호 의원 (국민의힘, 서대문2)

- ☐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이종배·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 의원입니다.
- ☐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 불리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하셨습니다. ‘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’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고, 이번 제 330회 임시회 상정을 앞둔 시점에 들린 슬픈 소식에 애통할 따름입니다.
- ☐ 교황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, 그 뜻을 이어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,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☐ 그 일환으로 교황께서 직접 참석 예정이셨던 ‘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’는 전 세계 청년들과 성직자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토의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교류를 하는 장으로, 1984년 창설되어 2027년 서울에서 41회차를 맞이하게 됩니다.

*중이 사용 줄이기 캠페인 취지에 따라 표지 사용을 생략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- 전 세계 수백만명의 외국인들이 서울로 방문하는 만큼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며, 서울시 글로벌 인지도, 경제적 생산성 창출 등 경제·문화적 특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실제 2023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청년대회는 대회 개최에 따른 총부가 가치를 5억 6400만유로, 한화 약 8천억원으로 추산, 생산 측면에서는 최대 약 1조 500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
-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한국 서울 유치를 위해 2023년 당시 박진 외교부장관까지 바티칸에 방문해 폴 리처드 갤러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달성한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.
-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시, 대한민국, 그리고 세계를 위한 평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
포르투갈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도착하는 프란치스코 교황. /연합뉴스